

신병들의 성행동조사에서 나타난 성적 활동성

Sexual Activity on the Survey of Sexual Behavior among Military Soldiers

Woong Hee Lee, Sang Yol Mah, Young Deuk Chol,
Zhong Cheng Xin, Hyung Ki Choi

From the Department of Ur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제39권 제6호 199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이용희·마상열·최영득
신종성·최형기

접수일자 : 1997년 12월 2일

교신저자 : 이 용 희
영동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 135-279
전화 : 02) 3497-3475

Purpose: For the survey of sexual behavior and activity in single male population, we examined the experience of masturbation, sexual intercourse and present sexual partner among military soldiers.

Materials and Methods: 830 military soldiers reported on sexual activity questionnaires and were taken physical examinations for evaluation of external genitalia.

Results: The group who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was 562(67.7%) and the other group who have not experienced was 268(32.3%). Among the former group, first subgroup who experienced first sexual intercourse with their lover was 452(80.4%) and second subgroup who experienced first sexual intercourse with prostitutes was 110(19.6%). The percentage of men who reported that they had experienced masturbation was 98.1%(815/830). Masturbation frequency was 2.6 times per month in the group without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That of first subgroup was 3.5 times, and the second subgroup was 3.0 times per month. Those who experience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were 40, which was 4.8% of those who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Conclusions: More than two thirds of adolescents experiences sexual intercourse and 5% experiences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t the end of adolescence, which reflects they are sexually active. We find out that the experience of masturbation is more in the military soldiers group than other groups reported and the reported frequency i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with or without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Because any deviation or wrong concept in sexuality may cause many social and medical problems such as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or harmful genitalial lesions in our country, the sound sexual education should be the ground of our improvement of sexual concept. (Korean J Urol 1998; 39: 593~6)

Key Words: Sexual activity, Military soldiers

서 론

청소년기의 자위행위나 첫 성경험 등에 대한 조사나 성행태에 대한 조사는 외국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져서 성별에 따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조사대상 구성원에 따른 분석까지 그 연구의 내용이 다양하다.^{1,5} 특히 성별에 따른 성에 대한 인식, 행태의 연구가 많아서 Kinsey 보고서 때부터 일반대중 및 대학생들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져 남성이 여성보다 자위행위 경험자가 훨씬 많으

며 빈도 또한 남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결과가 알려져 왔다.⁶ 즉,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13세 남녀의 자위행위 빈도는 각각 63%와 33%로 나타나며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층에서는 남녀 각각 86%와 60%의 자위행위 빈도를 보인다. 미국에서 시행된 시대에 따른 성행태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같은 대학 같은 강좌에 참여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1970, 1975, 1981년 세 차례에 걸쳐 시차를 두고 성경험을 조사한 결과 1970년에는 남녀 각각 40.5%와 35.5%의 빈도를 보이던 것이 1975년에는 61.8%와 45.0%로, 1981년에는 62.0%와 52.6%의 빈도를 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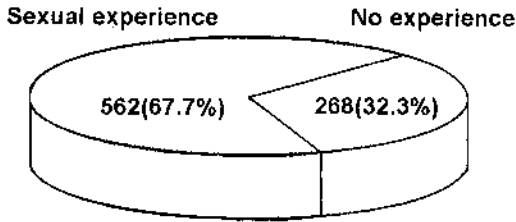


Fig. 1. The group who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was 562(67.7%) and the other group who have not experienced was 268(32.3%). The average age of 830 soldiers was 21.5(19-25)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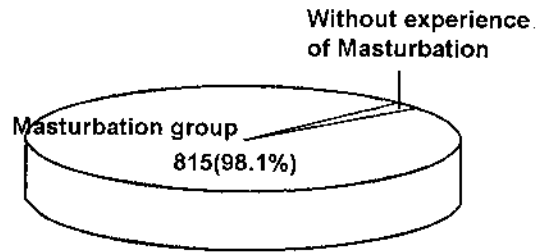


Fig. 3. The percentage of men who reported that they have masturbate was 98.1%(815/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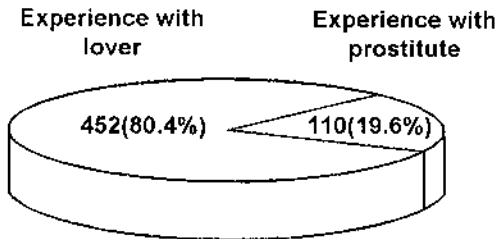


Fig. 2. One subgroup who experienced first experience with lover was 452(80.4%) and the other who experienced with prostitute was 110(19.6%).

조사하였다. 대상병사들의 평균연령은 21.5세(19-25)였고 성경험이 있는 군 562명과 없는 군 268명을 비교하여 성행태의 차이를 알아보고 첫 성경험의 연령과 대상 그리고 자위행위 시행비율 및 빈도에 관하여 성경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고, 조사대상의 성매개질병의 경험비율도 알아보았다. 또한, 신체검사를 통해 음경의 이물주입(바세린종)환자와 포경수술 시행빈도를 조사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고, $p < 0.05$ 인 경우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다.¹ 구서독에서 조사된 미혼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성적으로 활동적이었던 비율에 대한 조사는 20-21세 연령층에서 1966년에는 남녀 각각 42%, 39% 이던 것이 1981년에는 남녀 각각 60%, 78%로 증가했고 30세 이하의 전연령의 미혼 남녀의 조사결과는 1966년 56%, 48%에서 1981년 78%, 83%로 나타났고, 미혼남성의 자위행위빈도는 1966년과 1981년에 각각 월 5.5회와 8.1회로 조사되어,² 국외의 보고에서 공통적으로 사회문화적인 발달에 따라 최근의 조사일수록 성적 활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성행태에 대한 조사결과가 연구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한 현실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보고와 비교하여 한국의 미혼남성의 성행태의 특성과 활동성을 알아보기 위해 미혼의 신병들을 대상으로 성행동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그들의 성경험과 군입대 당시의 성적 활동성 등을 조사하고 신체검사를 통해 외부생식기의 병변, 포경수술 시행빈도 등을 함께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96년 4월부터 1997년 1월까지 훈련기간을 마친 육군신병 830명을 대상으로 성행동 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그들의 성행동을 조사하되 통제된 군생활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군입대 이전의 성경험과 성적 활동성을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신체검사를 통해 음경의 이물주입(바세린종)환자와 포경수술 시행빈도를

조사대상인 830명의 병사들의 평균연령은 21.5세(19-25)였고 성경험이 있는 군이 562명(67.7%), 없는 군이 268명(32.3%)이었다. 성경험이 있는 군에서는 애인과의 첫경험자가 452명(80.4%)이었고 매춘을 통한 첫경험자가 110명(19.6%)으로 나타났다(Fig. 1). 첫 성경험 당시의 나이에 관한 질문에서 애인과의 첫경험군이 18.8세(14-22)였고, 매춘 첫경험군이 20.1세(16-25)였다. 애인과의 경험군과 매춘 경험군간의 첫경험 연령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첫경험시의 성행위 횟수는 각각 2.1회와 2.3회였다.

설문 당시 성상대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애인과의 첫경험군에서 68명(15%)이었고 매춘을 통한 첫경험군은 12명(11%)으로 전체적으로는 80명(10%)에서 조사당시에 성상대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자위행위 시행비율은 815명(98.1%)에서 자위행위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여 외국의 같은 연령의 경험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행위의 빈도는 성경험이 없는 군에서 월 2.6회였으며 애인과의 첫경험군이 월 3.5회, 매춘 첫경험군이 3.0회로서 성경험 유무와 자위행위빈도의 관계 및 애인 및 매춘 첫경험 여부와 자위행위빈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전체적으로 자위행위빈도의 최빈값은 월 5회였다. 즉 성경험자군의 자위행위빈도가 많았고, 애인과의 첫경험군의 자위행위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경험자 중 성매개질병의 경험자는 40명(4.8%)이었다.

신체검사를 통한 조사에서 대상병사 중 포경수술 시행빈도는 출생직후 시행한 22명(2.7%)을 포함하여 382명으로 46%가 군입대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음경의 이물주입(바세린종)환자도 4명(0.48%)이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미혼남성의 성적 활동성은 성경험 비율(67.7%)과 자위행위 시행비율(98.1%) 모두 외국의 보고²⁾(60%, 86%)보다 높게 나왔으나 자위행위의 빈도는 차이가 없었다. 성경험 유무와 자위행위빈도의 관계 및 애인 및 매춘 첫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자위행위 빈도의 차이를 보였다($p < 0.05$).

청소년기(adolescence, 12-20세)의 성적 충동의 급격한 증가는 남자의 경우 중기나 후기 청소년기에 정점을 이루어 자위행위나 실제적 성행위로 해소해 나가는 데, 자위행위는 남자 청소년의 80-90%가 한다고 알려져 있다.⁷ 많은 청소년들이 자위행위 자체와 빈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나 자위행위가 해가 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정신과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죄악감이나 불안이 더 해롭다고 한다. 정신과에서는 자위행위의 중요성을 인격형성에 두고 있으며 가상의 자위행위 환상은 개인의 환상을 구성하는 방향이 인간의 생에 대한 중심적 갈등을 지향한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어서 중심적 인격형성을 이룰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⁸

외국의 성행동조사결과에서 보면 성경험, 자위행위 등 모든 성행태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인종, 종교, 교육, 시대의 모든 영향인자에 따라 조사결과가 다를 수 있다. 미국의 11년 시차를 둔 연구결과 남녀 모두 20%씩의 성경험의 증가를 보이는 것이나,¹ 서독의 성행동조사에서 시대에 따라 미혼 남녀의 성적 활동성 비율이 56%, 48%에서 15년만에 남녀, 78%, 83%로 역전되는 양상²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신병들을 대상으로 성행동조사를 시행한 결과 성적 활동성이 이전의 외국의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의 문제로서 신병훈련을 마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에서 미혼남성을 무작위로 추출한 장점은 있으나 이 방법도 신체등급이 열등한 군은 배제됨에 따라 소집면제된 미혼남성군의 상대적 성적 비활동성이 배제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는 조사시기의 문제로서 외국의 보고에서 동일조건외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시대적으로 10년에서 20년의 간격을 두고 조사하였을 때 성적 활동성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저자들이 비교한 외국의 조사자료가 10년이전의 자료이므로 이에따라 더 활동적으로 조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자위행위빈도는 외국의 보고와 차이가 없었는데 매춘 첫경험군, 애인과의 첫경험군, 성경험이 없는

군의 순으로 조사대상군 내에서의 자위행위빈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신체검사를 통한 조사에서 대상 병사 중 음경의 이물주입(바세린종)환자가 4명(0.48%)이 있었으며 성매개질환도 40명(4.8%)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 것은 청소년기의 성교육의 결여로 성에 대한 의식이 건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성과 관련된 의식은 우리의 사회전체의 모든 면이 다 관련되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개선방향은 올바른 성교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학적으로도 과거 유럽에서 수십년간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전후에 시행한 청소년의 성적 개방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30년 이상의 체계적 초, 중, 고등학교별 성교육 체제가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의 의미있게 건전한 것으로 바꾸어 성윤리, 건전성, 성의 권리, 인간관계, 피임, 부모의 책임 등의 모든 면에서 종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성교육방식의 차이를 보인 미국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를 통해 볼 때, 점차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성문제가 문제시되는 지금 우리사회의 성의식 개선방향도 건전한 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포경수술 시행빈도에서는 출생직후 시행한 비율은 최근의 초등학생대상 역학조사⁹의 21%보다 훨씬 적은 22명(2.7%)로 나타났으며 총 382명(46%)가 군입대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저자들의 다른 조사에서 전역병 250명을 대상으로 한 포경수술여부의 조사결과 75%가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미혼남성의 약 30%가 군생활 중 포경수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 론

한국의 미혼남성의 성행태의 특성과 활동성을 알아 보기 위해 830명의 신병들을 대상으로 성행동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그들의 성경험과 군입대 당시의 성적 활동성 등을 조사한 결과 외국의 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경험, 자위행위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위행위의 빈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성경험 유무와 자위행위빈도의 관계 및 애인 및 매춘 첫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다. 현재의 성상대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10%였고 성매개질환 경험자가 4.8%로 나타났다. 신체검사를 통한 음경의 이물주입(바세린종)환자가 0.48%이었으며 포경수술 시행빈도는 출생직후 시행한 2.7%를 포함하여 382명으로 46%가 군입대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외국에 비해 한국의 미혼남성의 성행태의 특성은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의 성교육의 결여로 성에 대한 의식이 건전하지 못한 데에 따른 성병유병률, 외부생식기의 병변을 가질 수 있으므로 우리사회의 성의식 개선방향도 올바르게 건전한 성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Earle JR, Perricone PJ. Premarital sexuality: a ten-year study of attitudes and behavior on a small university campus. *J Sex Res* 1986; 22: 304-10.
 2. Clement U, Schmidt G, Kruse M. Changes in sex differences in sexual behavior: a replication of a study on West German students(1966-1981). *Arch Sex Behav* 1984; 13: 99-120.
 3. Schmidt G, Klusmann D, Zeitzschei U, Lango C. Changes in adolescents' sexuality between 1970 and 1990 in West Germany. *Arch Sex Behav* 1994; 23: 489-513.
 4. Weinberg MS, Lottes IL, Shaver FM. Swedish or American heterosexual college youth: who is more permissive? *Arch Sex Behav* 1995; 24: 409-37.
 5. Sprecher S, Hatfield E. Premarital sexual standards among U.S. college students: comparison with Russian and Japanese students. *Arch Sex Behav* 1996; 25: 261-89.
 6. Leitenberg H, Detzer MJ, Srebnik D. Gender differences in masturbation and the relation of masturbation experience in preadolescence and/or early adolescence to sexual behavior and sexual adjustment in young adulthood. *Arch Sex Behav* 1993; 22: 87-98.
 7. 조두영. 삶의 주기. In: 조두영, editor. *임상행동과학*. 2nd ed. 서울: 일조각, 1993; 2-18.
 8. Kaplan HI. Developmental themes of adolescence. In: Kaplan HI, Sadock BJ, editors.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6th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95; 132-5.
 9. 김기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포경과 포경수술에 대한 역학조사(I). *대한비뇨학회지* 1997; 38: 1103-8.
-